

第76回

6月9日, 成功



- ● 本會가 주최한 第76 ○ ●
- ● 回 發明教室이 지난 ○ ●
- ● 6월9일 發明장려관 ○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 每月 둘째 토요일 午 ○ ●
- ● 後 1時에 開催되는 ○ ●
- ●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 ●
- ● 1백여명이 參席하여 ○ ●
- ● 盛況을 이루었다. 이 ○ ●
- ● 날 發明教室에서는 ○ ●

해양월력 發明家

個人發明家 朴清正 씨

국내 처음으로 주요 수역 별 물때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해양월력을 發明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개인發明家 朴清正 씨.

그는 '89기업화 추진 추천 대상에 선정돼 물품을 생산, 시판하게 되었으며, 「한국인의 지혜 물때」와 「국제해상 출동 예방규칙」이라는 저서를 남겨 선박안전 운항 및 어획증가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경남통영의 한산도에서 태어난朴씨는 어릴적부터 바다를 보며 자라나 그 누구보다도 물때의 성질을 잘 알고있었으나, 이후 해사에 들어가 서양에서 들어온 조간만의 차만 사용함을 보고 무척 안타

가워했다.

『물때는 홍수 및 폭풍에도 대처하는 지혜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거죠.』

朴씨는 연구결과 어촌에서 어부들이 알고있는 물때는 실제와 이틀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 정확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증명해 보여 학계와 수산업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가 發明한 이 해양월력의 주요특징중 하나는 물때를 인체에 비유, 썰물때는 매일의 수위를 「한조금」, 「한매」(밭목의 옛 말), 「두매」, 「무릎사리」, 「배꼽사리」, 「가슴사리」, 「턱사리」 등으로 인체의 앞부분에 비유해 각 명칭을 붙였고, 밀물에서 썰물쪽으로 가면 「목사리」, 「어깨사리」, 「한꺼

기」 등으로 인체의 뒷부분에 비유해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해양월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85년부터였으며, 이의 보급을 위해선 월급을 다 쏟아부음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해군 중령맨 대령진급 논문으로 물때를 채택했지만 『타임머신을 돌려놓는다.』란 비웃음만 사고 탈락한 다음, 87년에는 계급정년에 걸려 퇴역해야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89기업화추진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고 여러신문에 기사화되어 홍보가 이루어지자 전국권현방수협 등 관련 업계에서 해양월력의 주문이 쇄도해 朴 씨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發明教室

事例 등 發表

- … 개인發明家 朴清正 …○
- … 씨와 한국총원 밀봉 …○
- … 원 洪淳璉 시장의 成 …○
- … 功事例發表에 이어 …○
- … 洪載日 權理士의 「産 …○
- … 業財産權制度」에 대 …○
-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 … 었다. 두 發明家の 成 …○
- … 功事例를 간추려 紹 …○
- … 介한다. <尹榮琦 記> …○



양봉 로얄제리채취틀 發明家

한국총원밀봉원 洪淳璉 사장

꿀벌과 더불어 70평생 외 길 인생을 살아온 한국총원 밀봉원 洪淳璉 사장은 양봉 로얄제리 채취틀 외 조립식 소광소초 등 다수의 發明을 하여 직접 企業化를 이룬 發明 企業人으로, 현재 대리점 만 해도 충남, 강원, 전남, 경남, 등 전국에 20여 곳이나 된다.

50여년 간의 발명생활을 하여온 洪사장은 6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의욕만은 그 어느 젊은이만 못지않다.

양봉 로얄제리 채취틀 외에도 다수의 획기적인 發明을 한 洪사장은 수십년간 한가지 發明品에 3~4 차례 수정, 보완을 하는 끈기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어려서부터 반질고리, 광주리, 명석 등을 만들어 어른들을 기쁘게 했다는 洪사장은 아직도 자신이 發明한 發明品의 모형은 직접 만든다.

洪사장이 發明한 양봉 로얄제리 채취틀은 못을 박아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조립식으로 왕완이 붙어있으므로 접착제가 필요없어 벌을 보호하며, 20%이상 로얄제리를 증산할 수 있고 로얄제리가 깨끗하게 생산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洪사장은 1937년 4월 벌통 하나를 구입하여 정성을 다해 관리함으로써 5년 후, 50통의 벌통으로 번식시켰으며, 이후 밀원을 따라 이동양봉을 하기 시작했다.

『이동양봉을 하다보니, 국

내에선 최고 양봉생산 수확을 거두었으나 종전에 사용한 도구들이 너무 불편하고 낡았다군요. 그래서 그때 그때 단점을 메모하여 모형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실이 많아 꿀벌이 벌어진 돈을 금형제작과 特許를 얻기 위해 전부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洪사장은 철저한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發明品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特許登錄 5건을 취득하여 '89시작품제작지원을 받아 금형을 제작, 발명장려관에 전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현재, 전국 20여개의 대리점을 갖게된 洪사장은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